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대형건설사들 잇단 철수

SOC 발주 줄어들자 지사 통폐합·축소 일감 없는 지역건설사들은 틈새시장 찾기

광주·전남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발주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광주에 지사를 뒀던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호남지사를 없애거나 규모 축소에 나섰다.

관급공사로 지탱해왔던 대부분의 지역 건설사들도 올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서 SOC 유지·보수 등 틈새시장 찾기에 돌입했다.

20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의 광주·전남지사 폐쇄 및 축소 가 가속화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태영건설은 최근 호남지사를 없애고, 충청권의 중부지사와 통폐합했다. 호남에 상주인원을 두지 않겠다는 것. 동부건설은 아예 호남지사를 폐쇄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을 짓고 있는 현대건설은 지사장의 직급을 상무에서 부장급으로 낮췄다. 삼성건설도 최근 지사장을 교체하고 3명의 지사 인원을 1명으로 줄였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4대강 공사나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 공사 등 수

년 새 있었던 ‘굵직한 먹거리’가 사라지면서 대형 1군 업체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SOC 투자를 줄인다고 밝힌 만큼,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3년간 주요 건설사업 예산은 2011년 7179억원에서 2012년 7165억원, 올해는 5491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100억원 이상 공사로 지난해 19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16건으로 감소했다.

호남의 도로·하천 등을 관장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도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2009년과 2010년 각각 1조7999억원, 1조7213억원에 달했던 것이 올해는 1조6057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줄었다.

지역 건설사들은 일거리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한 지역 건설사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9월 기준, 올해 목표로 세웠던 수주실적의 10~50%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중견건설업체인 A사는 올해 4000

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턱기(설계시공 일괄발주)와 최저가입찰 등을 포함해 1300억원대 수주에 그쳤고, B사도 목표실적 3100억원의 3분의1에 불과한 970억원을 수주했다.

C사는 1000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수주액은 10%를 갓 넘긴 130억원에 불과했고, D사는 1500억원의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280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들은 SOC 유지·보수 및 민간자본 건설 가담 등 새시장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SOC 시설이 1970~1980년대에 집중 건설된 만큼 보수 및 성능 개선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도로 건설에 투자, 유지·보수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올해는 발주건수와 수주액 모두 크게 줄어든 것이 봄으로 체감될 정도로 폭 떨어졌다”며 “SOC 예산 감소에 따라 올해까지는 겨우 버텨지만 내년부터는 심각한 불황이 예상돼 다른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생존경쟁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윽척이요”...가래치기 고기잡기

초겨울 날씨를 보인 20일 오후 강진군 병영면 중가마을 내 중가 저수지에서 주민들이 가래치기 방식으로 붕어, 가물치, 잉어 등을 잡고 있다. 가래는 대나무나 갈대를 엮어 만든 원뿔형의 바구니로, 가래치기는 통속에 갇힌 물고기의 움직임을 포착해 잡는 전통 어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민 저축 가장 많이 하고 가계부채는 특·광역시중 최저

광주시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저축하고, 부채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소득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가구당 저축 7631만원
울산·서울보다 많아

가구당 소득 4667만원
전국 16개 시·도중 4번째

수 있는 광주시민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3696만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서울은 광주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가구당 평균 8638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광주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가구당 평균 부채도 4699만원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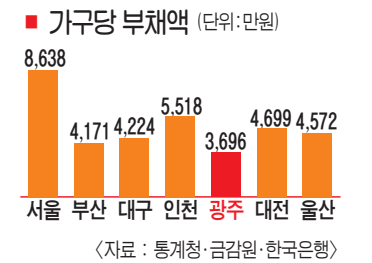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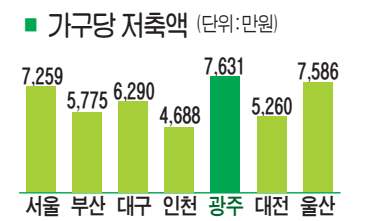
지난해 광주시의 평균 가구소득도 4667만원으로 전국 평균 4475만 원을 초과하는 제도를. 올해 조사에서 빈곤도를 가능할

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뺀 금융자산도 8883만원으로 전국 시·도 중 4번째를 기록했다.

광주시민의 가구당 소득과 저축액은 높은 반면 부채 규모가 적다는 것은 가계의 재무건정성이 그만큼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광주시민의 가정 경제가 안정세로 접어든 것은 민선 5기 들어 자동차와 가전·광(光)·금형산업 등 주력 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해 소비형 도시에서 수출형 도시로 체질개선에 성공한 데 이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국내의 투자유치, 안정적인 물가관리 등 경제 활성화 중심의 다양한 선진시책이 이루어진 결과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가장 경제가 안정된 도시로



도약했다는 의미 있는 조사 결과”라면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다양한 창조행정을 통해 풍요로운 경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 수준 지방재정 5년내 40%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20일 “8대 2의 비율로 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를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할 자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심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회견에 들려 “국가·자치 사무의 영역을 구분해 책임을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

라 재정까지 이양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5년 내 지방재정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40%까지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의 지방재정 규모는 50.4%에 달하며 독일 48.1%, 일본 44.9%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에 불과하다.

심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도정을 잘 운영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세수 역시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국제 중심으로

영되는 만큼 앞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운영을 발주, 이런 방안이 담긴 지방자치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심 위원장은 “국가 정책으로 지방세가 감세·감면되는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2013년 12월19(목)~23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062)605-1114



세기보청기

세기의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FDA 미국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 인증 국제의료기기품질 ISO 13485 인증 CE 0120 유럽공통체 CE마크 인증 GMP 의료기기 제조업체

<p>광주광역시 47면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p> <p>세기보청기 (062)225-5110</p>	<p>광주광역시 47면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p> <p>세기보청기 (062)651-4477</p>	<p>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p> <p>세기보청기 (061)752-8845</p>
--	--	--